『신앙과 학문』. 22(4). 161-196.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A Semiotic Analysis on 〈Shepping〉 From the Perspective of Neighborly Love and Self Love

이 란 (Ran Lee)*
지상선 (Sang Sun J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German-American Christian nurse missionary, the life of 'Shepping' from the perspective of neighborly love and self love. For this, the most recently published biography on 'Shepping' 〈A little Jesus in Chosun: Shepping: Slowly and Calmly〉 was determined as the text for that analysis. The used semiotic methods were the paradigmatic analysis, the semiotic square model, and the actantial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Shepping's love by the analysis were these. First, the essential and the origin of Shepping's love were her love toward God. Second, Shepping's neighborly love took priority over self love. Third, Shepping's neighborly love took on a nature of enemy love. Fourth, Shepping's neighborly love was characterized as a mutual one. Fifth, Shepping possessed a mature self-love, not selfish one. The selfobjects who took care of and love her in order for her to have a healthy self structure were considered as not only God but also Korean neighbors. In the center of Shepping's mature love, there were the contributions of those selfobjects above.

Key Words : Elisabeth J. Shepping, neighborly love, self love, semiotic analysis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iran370@hanmail.net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수료(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moathink@hanmail.net
2017년 10월 16일 접수, 11월 26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Ⅰ. 서론

서서평은 일제 말기 한국에 간호 선교사로 파견되어 53세로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전도와 치료, 교육, 구제 사역 등에 일신을 헌신했던 독일계 미국 선교사다. 서평은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진 타 선교사들과는 달랐는데 한국문화, 한국말, 특히 불우한 한국 여성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동일화'하였다(임희모, 2015a: 174). 최근 그의 삶이 영화화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고 회자되었는데 무엇보다 서평의 한국인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과 구제, 청빈한 삶과 철저한 자기희생이 화제가 되었으며 그의 이러한 면모는 선교를 꿈꾸는 많은 기독인들에게 현대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기독교에서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상호 협조적인가 상호 배타적인가 하는 논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헌신은 자기 유익 추구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이 이웃 사랑에 몰두하는 '자기 부인'에 가까웠다(이종록, 2015: 84). 자기희생을 통한 복음 전파와 폭넓은 사회사업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은 사실 서평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역설해 주는 것이다(요일 4:7-12). 그러나 서평이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자기를 위해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서평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자기를 사랑할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평이 이웃 사랑을 참되게 실천하며 살았다는 사실은 그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서서평의 선교사로의 삶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기독교 윤리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서평에 관한 연구에 선교와 교육, 사회구제에 초점을 맞춘 선교 실천학적인 연구(김은주, 2015; 임희모 2013; 2015a; 2015b; 차성환, 2014), 서평의 특수한 어린 시절 경험을 그의 선교적 삶의 특색과 연결하는 심리학적 연구(이혜숙, 2016; 차성환, 2015) 등은 있었으나, 서평의 희생적 삶을 성경적 원리와 이론에 의해 "사랑"이라는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주제로 통합하여 조명한 연구는 부재했다. 본 연구는 특히,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논쟁인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서평 선교사의 선교적 한국 사랑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제안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분석 대상으로는 가장 최근 출판된 전기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2017, 이후 <서서평>)를 선택하였다. 최근 상영된 영화 이후 출판되어 영화보다 더 자세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기존의 폭넓은 자료를 참고해 다각도에서 바라본 서평에 대한 진솔한 평가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1]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서평에 대한 전기 텍스트는 양창삼의 <조선을 섬긴 행복>(2012)이었다. 이 텍스트는 2017년 현재까지 서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물에서 빠짐없이 거론되어온 귀중한 자료로서 이미 여러 차례 인용되고 분석된 바 있다(김은주, 2015; 윤매옥, 2016; 이종록, 2015; 이혜숙, 2016; 임희모 2013; 2015a; 2015b; 차성환, 2014; 2015). 본 연구는 이미 다수의 논문에서 주요 연구 자료로서 활용되어 연구가치가 낮은 텍스트를 피하고,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바 없으며 그동안의 전기적 자료가 포괄적으로 축적되어 있고 서평에 대한 보다 최근의 시대적 재평가를 담은 전기 자료를 택할 필요가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한 인물에 대한 전기적 자료를 최대치 모아 인물의 전체적 삶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피하고, 특정 집필 저자의 한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당대 기독교의 문화적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는(이정윤, 2010: 206) 기호학 분석을 택했다. 기호학은 한 문화 텍스트의 기표 자체가 의미하는 외시적 의미에서 나아가 이 기의가 사회적 의미로 전이되는 사회 함축적 의미를 밝힐 수 있어(이윤석・김슬기, 2011: 218), 현 시대정신을 미시적인 방식으로 심도 있게 읽어내는 연구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호학 분석은 이전에 시도된 바 없는 서평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텍스트 속에 표현된 서평의 삶에 대한 묘사와 평론을 통하여 현 시대가 어떠한 선교와 섬김의 삶을 이상화하고 모범으로 하는가의 기준을 발견하고 서평의 삶을 이러한 현 시대적 잣대로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기호학의 텍스트 질적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사용된 기호학적 분석 도구는 계열체 분석, 기호 사각형 모형, 행위주 모형이었다.

본고는 먼저 서서평의 일생과 선행 연구를 살피고, 기독교의 사랑 윤리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한 후, 전기 텍스트 <서서평>(백춘성, 2017)을 서평이 보여준 사랑에 초점을 맞춰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사회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기독일보 2017년 4월 10일자 기사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참조.

II. 서서평의 일생

서서평(徐舒平, 1880년~1934년)은 독일계 미국인 출신의 간호사이며 선교사이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Elisabeth Johanna Shepping)이다.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다. 3세일 때 어머니가 미국 뉴욕으로 홀로 이민 가자 조부모에게 맡겨진다. 9세에 할머니를 잃고, 서평은 엄마 주소를 들고 홀로 미국으로 떠난다.

서평은 미국에서 엄마를 8년 만에 다시 만났다. 서평은 가톨릭 미션 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뉴욕시립병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실습하던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 후, 예배의식이 가톨릭교회보다 간결하고 자유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면서 개신교로 전향하였다. 인간의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서평은 1904년 성경학교(Bible Teacher's Training School)에 입학하여 1911년까지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인 성경공부에 몰두하게 되면서 "영적 세계가 목전에 펼쳐지고 그 생명이 포도주처럼 자신의 혈관을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된다(Swinehart, 1937: 161).

이처럼 개신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집안 대대로 믿어 온 가톨릭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절연하게 되었다. Swinehart의 당시 여선교사 스케치에 따르면, 서평이 조선 땅을 밟은 지 17년이 되던 해, 미국에서 어머니를 재회하게 되나 누더기 차림의 서평을 부끄러워 한 어머니가 다시 한 차례 서평을 문전박대하여 재차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게 한다(Swinehart, 1937: 161). 이처럼 어머니와 절연한 서평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속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및 유대인 요양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다(임희모, 2015a: 174). 1904년 뉴욕 Bible Teacher Training School의 Traveler's Aid Missionary에서 1년간 봉사하였다. 1911년 졸업 후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 모집에 1912년 지원하여 간호선교사로 조선으로 파송을 받았다(양창삼, 2012: 26)

서평은 32세에 조선으로 와서 53세로 소천하기까지 당시 일제점령기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조선 초창기 선교사이다. 광주 선교부 제중원의 간호사로서 병원과 주일학교를 도왔다. 제주와 추자도 등에서도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어렵고 약한

사람을 보살폈다. 서평은 한국어를 매우 잘 했으며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한국인의 풍습을 익히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민족의식을 가지고 압제받는 한국인을 이해하였다(임희모, 2015a: 180-2).

> 외국의 돈이나 원조로 인해서 그 어떤 조선인도 가난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인의 통치자들, 즉 일본인들의 탓이라고 여깁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Shepping, 1930, 양창삼(2012: 389)에서 재인용).

서평이 1920년에 쓴 글에는 한국인들이 무지와 가난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 하는 현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Shepping, 1920: 205-7). 입원 치료를 완료하고도 종 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한 여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서평이 겪은 갖은 고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 구조된 여아는 이후 기독교교육을 받고 기독교인과 결혼하여 양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모두 서평의 희생적 도움 때문이었다.

특히 서평은 한국의 불우한 여성들에 대한 연민이 많았다.

> 현재까지 조선여인들은 자기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자기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여인들의 이름은 한자로 출생 증명을 했고... 자기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아마도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녀는 60살이 넘었거나 아직도 그렇지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불리었듯이 태어난 특정 지역의 이름을 넣은 상태로 어느 태생의 여인으로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만들어 주는 일 혹은 이름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여인들은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과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Shepping, 1921, 양창삼(2012: 366)에서 재인용).

> 내가 더 가난한 계층의 장성한 여성들을 연민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영적인 생활과 유익한 기독교 훈련의 모든 열매를 그들의 생활 속에 있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는 주로 그들의 연약함과 영적 어두움이 주는 전적인 무기력 때문입니다(Shepping, 1928, 양창삼(2012: 355)에서 재인용).

따라서 서평은 한국 여성들의 인권운동과 이들의 자립과 정체성 확립을 가르치는 이일학교를 세웠다. 주일학교 확장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간호협회를 만들고, 여전도회를 조직하였다. 이렇듯 사회개혁을 추진하는데 실천적 삶을 살았다. 선교 현지의 불우한 여인들과 고아, 과부, 나환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다. 임금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하였고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양아들

요셉을 포함하여 무려 14명이다.

> 사회봉사 사역과 관련하여 이 일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거대한 분야입니다. 남쪽에 살면서 광주나 군산에서 병원 간호업무를 책임지고 있을 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제 수고를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사회구호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 극빈자, 병자, 그리고 노인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숙소를, 혹은 치료될 때까지 병실을 찾는 일, 혹은 매일 집에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친구를 얻는 일이며 나름의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Shepping, 1920, 양창삼(2012: 351-2)에서 재인용).

Nisbet에 따르면 서평은 “Not Success But Service” 문구를 평생 침대 맡에 붙여놓고 좌우명으로 삼았다(Nisbet, 1934). 한국 사회는 서평을 ‘재생한 예수’ 혹은 ‘작은 예수’라 불렀다(임희모, 2015a: 175). 한국인들은 예수님이 서평을 통하여 한국 땅에 성육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임희모, 2015a: 184). 선교활동 시작 3년만에 걸린 스프루(sprue)병으로 임종 시까지 고통에 시달렸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강의하기도 했다(Brown, 1962: 121). 임종 때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하였다. 자신의 세운 이일학교의 학생이 운구 행렬을 이뤘고 수많은 여성들이 흐느끼며 뒤따르는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이었다(백춘성, 2017: 228-9). 그녀의 마지막까지의 삶에서 남은 것은 담요 반 장, 강냉이 가루 두 홉, 동전 일곱 개가 전부였다(임희모, 2015a: 189).

> 한 위대한 선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병을 뒤로 하고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평 선교사는 조선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즉 그녀의 시간과 힘과 정력과 마음과 헌신과 소유를 다 바쳤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몇 일만에 유품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정리할 물건이 거의 없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핍해서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을 항상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줄 돈이 없을 때는 침구류, 음식, 책, 옷가지, 수건 등 자기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일 성경학교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던 불황기에는 자신의 박봉을 털어서 예산에 보탰습니다(Knox and Talmage, 1934: 218-9).

서평은 선교사이자 사회사업가로서 “근대적인 전문 사회사업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며(차성환, 2014: 29), 진정성 있게 한국을 사랑하여 무명옷에 고무신,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삶을 영위하는 등 한국인과 “동일화”하여 살았다(이종록, 2015: 69). 또한 한국주

재 타선교사들이 선교에만 집중한 반면, 서평은 작은 예수라 불리면서 사회사업과 선교를 접목한 사회봉사 선교, 즉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였다(임희모, 2015b: 266). “자기희생의 섬김을 통한 성육신 선교”라고도 불리며(임희모, 2015a: 187) 오늘날 전문인 선교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임희모, 2013: 206).

Ⅲ. 서서평에 관한 선행연구

서평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서평의 선교적 삶 전체에 대한 선교학적, 사회구제학적 의의 규명이 많다. 서평이 남긴 선교 편지, 일상적인 글, 주변 사람들의 진술, 관련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그의 선교 전략과 영성을 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의 선교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임희모(2013)는 서평을 전문인 선교사로 이름 붙이고 그의 선교는 목회적 선교와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결합한 통전적 선교임을 피력했다. 특히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간호의료선교, 교육선교, 교회개척 선교, 사회봉사 및 사회개혁 선교를 아우르는 통전성을 현 시대의 선교가 지향해야 할 선교 전략으로 이해했다. 전문인 선교사 유형들의 일반적 전문성과 포괄성을 살핀 후, 서평의 장로교 복음적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과정, 성경교사훈련학교에서의 경험, 간호사로서의 훈련과 준비 등을 서평의 전기에 기초하여 서술했다. 특히 서평의 전문성은 언어(한국어, 한자 포함), 지역(문화, 풍습, 전통, 윤리, 시대현실), 직업(간호사로서의 전문적 활동), 사역(이일학교 교육, 전도, 교회개척, 구제와 봉사) 모두에서 통전적으로 성취된 것임을 증명하고 그 선교전략은 한마디로 섬김의 영성과 토착성에서 온다고 규명했다(임희모, 2013: 199-200). 이일학교를 선교센터로 구심적이고도 원심적 선교를 하였고 간호사역과 지역 순회사역을 통한 한국인과 사회에 대한 분석, 선교를 위한 성경학교, 지역주일학교 운동과 사회개혁 등을 실시하였기에 학교, 교회, 병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인 선교사의 상황적 창의적 사역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순종의 영성을 강조하였다.

임희모(2015a)의 두 번째 연구는 서평 선교사의 성육신적 선교를 강조하였다. 서평의 성장과정, 교육적 배경, 사회봉사적 실천, 선교내용과 구조, 영향 등을 서술하고 당

시 자문화중심주의에 사로잡혀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한국 문화와 상황에 동일화하여 불우한 여성들의 삶에 성육신하여 선교한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른 선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선교적 태도를 대비하고 서평의 복장, 음식,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민족의식 등의 일화를 강조하여 재생한 예수, 작은 예수로서의 서평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현지문화와 상황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극복, 문화적 차원에서 외형, 내면 모두의 동일화, 진정성 있는 현지인에게의 전달, 총체적 복음으로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등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임희모(2015b)의 세 번째 연구는 평신도 선교사 서평을 통해 구현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의 선교적 교회 형성에 주는 함의를 논하였다.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를 서술하고 그것을 틀로서 서평의 선교적 삶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기 위해 서평의 지역사회 선교 개념과 활동을 준거점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평의 사회사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차성환의 연구(2014)로 의료 사업을 조직사회학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그 사회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의 비천한 의녀제도와 비교하면서 서평의 활동이 근대적 간호사업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동기 체계를 심어주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직의 소명을 역설하여 노예 신분에 있던 여성에게 정신적, 종교적 해방을 선사하고 사회적으로도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경제력을 갖추게 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차성환, 2014: 29-30).

서평의 삶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또 다른 연구는 이종록의 연구(2015)로서 서평에게서 보이는 비제국주의적 자세를 당시 만연하던 사회 진화론, 타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비교하면서 서평의 남다른 비제국적 사고가 갖는 시대적 의의를 드러냈다.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 만연하던 시대사조, 사회 진화론과 문명화 사명 논리에 빠지지 않고 특권적 삶이나 우월의식, 개인적 부 축적을 위한 상행위와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한국 여성들의 불우함에 동화되어 한국 여성들과 동일한 가난한 삶을 산 서평의 차원 다른 삶을 조명하면서 서평의 비제국주의적 정신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서평의 누미노제 신비 체험을 칼 융의 무의식 이론에 기대어 분석하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우한 어린 시절이 그녀의 정신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내적 심연으로 내향화시킨 점을 강조한 차성환의 연구(2015), 서평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이혜숙, 2016), 서평의 삶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사랑과 섬김

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생명존중을 최고 가치로 두는 간호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윤매옥의 연구(2016), 서평의 사역 중 신학과 교육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귀납법적 성경연구와 기독교 교육적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김은주의 연구(2015) 등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그의 선교사적 희생, 사회봉사적 통전적 선교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전기적인 생애 탐구를 통해 심리적 접근을 한 연구, 서평의 다양한 사역 중 하나의 특수 사역에 중점을 두고 그 함의를 밝힌 연구 등이다. 그러나 그의 다채로운 사역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해 줄 이론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신학적, 성경적 원리를 서평의 삶에 투영해 파헤친 연구는 없으며, 특히 서평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중 문화 텍스트(전기문) 분석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은 전무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서평에 대한 연구로서는 최초로 특정 텍스트 기반의 기호학 분석방법을 통해 서평이 선보인 삶을 “사랑”이라는 기독교 윤리이론을 투영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Ⅳ. 기독교의 사랑

성도에게 부여된 이웃 사랑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긴밀히 연결된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기초해야만 이웃 사랑이 기독교적 사랑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은 명백히 차별화 된 두 가지 차원의 계명이다(마 22:37-40).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서 자기 사랑을 발견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왔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사랑 계명 안에는 세 가지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유력한 전통이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 존재해 왔다.

본 장에서는 서평의 삶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랑의 범주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웃 사랑

기독교는 사랑을 그 핵심 가치와 최상의 율법으로 삼는다. 하나님과 이웃이 그 사랑의 대상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웃 사랑 계명은 그 상위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뒤따르며(마 22:37-40), 아가페적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다(요일 4:7-12). 이처럼 자기애를 넘어서서 타자들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대립하는 예외적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사랑을 보다 우선해야 함도 성경이 권고하는 메시지이다(눅 9:61-2, 14:26). 이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부모, 자식, 전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된다. 하나님 사랑의 주된 방식은 이웃 사랑과 달리 '예배'에 있으며, 두 사랑의 섣부른 동일시가 우상숭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하나님 사랑을 동료 사랑으로 환원하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 등이 그 경계해야 할 이유로 지적된다(이창호, 2016: 255-6).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며(마 25장),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 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요일 4:20-21)는 점에서 두 사랑의 연결성은 명백하다.

예수의 이웃 사랑 계명이 구약적 관습과 차별적인 이유는 이웃 공동체의 범위가 배타적이고 특수주의적인 유대교의 제한성을 뛰어넘어 일종의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Nigren, 1953/2013: 67). 이스라엘 선민을 넘어 이방인까지, 믿는 가정을 넘어 불신자까지를 포함한다 해도 이웃 사랑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결정적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원수사랑인데 이 가르침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구현되었듯이 이웃과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자의 경계를 허물고 "어느 누구든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친구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이라는 기본 도식을 가진 고대 공동체 이상과 비교할 때 현저히 파격적인 것이다. 사실 구약의 레 19:18의 보복 금지 윤리도 당대 동태복수법에서 한 단계 승화된 것으로서 원수 보응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례적인 윤리였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는(마 5장, 눅 6장), 심지어 원수가 이웃과 동의어가 되었으며, 오른뺨을 때리면 (원수의 행동) 왼뺨을 돌려대는 자기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이방인 사랑법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파격적인 원수사랑의 요구는 하나님이 친히 악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원인적 사랑

안에 위치해 있다(눅 6:35-6).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원수) 사랑의 전형이시다.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는 '동등'과 '배려'가 있다(Outka, 1972: 9). '동등'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가치 규범적 내용으로서 인류 전체를 향한 무차별적인 보편성의 사랑을 의미하며, '배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값없이, 가치평가 없이 사랑 자체에 헌신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동등배려의 사랑은 대상의 적대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원수사랑의 성격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사랑의 성격은 모두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일방향적(unilateral)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은 자발적이면서 동기 초월적이며(Nigren, 1953: 74-7)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넘어선다(Nigren, 1953: 77-8). Nigren은 원수사랑이 이웃 사랑의 '극단'이 아니라 본성상 이웃 사랑의 '기원'이라고 규정하고, 참 아가페 사랑이 자발적, 동기 초월적, 비(非)가치판단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수사랑이야말로 아가페의 본질임을 주장했다(Nigren, 2013: 102-3).

원수사랑은 당시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 죄인과 병자, 세리를 친구로 여겼던 예수의 혁신적인 삶을 배경으로 할 때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박인희, 2016: 297). 원수사랑이란 유대의 전통 관습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위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로서 평등하게 수용되는 급진적 관용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관계성의 혁신으로서 전통적 유대 사회와는 결별하는 새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했다(박인희, 2016: 303). 갈릴리에 범람하던 사회적 약자들과 사치와 착취를 일삼던 소수 지배층들은 예수의 새 공동체 이상, 즉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외부인을 내부인으로 포용하고 진정한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원수사랑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받았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산상수훈에서의 원수는 결코 선별될 수 없는 이웃 그 자체이며, 아가페 사랑은 개인적, 민족적, 정치적 타자, 신앙적 동지뿐 아니라 타종교인, 그리고 사회적 동류인의 개념 속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포괄하는 "무한대적인 사랑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조경철: 2000: 136). 따라서 이 사랑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며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져야 가능한 하나님 원인적 사랑의 속성이다(롬 5:5, Nigren, 2013: 134).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후 분석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 사랑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 외 사랑의 통칭인 에로스 사랑의 성격을 Nigren의 기술을 따라 요약적으로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Nigren, 2013: 217).[2] 아가페는 희생적으로 베푸나

에로스는 획득적 욕망과 동경이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이나 에로스는 사람의 노력이며 구원이 자기의 일이다. 아가페는 이타적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나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가장 높고 고상하고 숭고한 형태의 자기주장이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상실하나 에로스는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 아가페는 풍부하기에 베푸는 자유이나 에로스는 결핍과 필요에 의존하는 획득과 소유의지이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도 이 신적인 사랑을 본받은 것이나 에로스는 하나님도 에로스 대상이 된다. 아가페는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하나 에로스는 대상의 속성과 가치의 의해 결정되며 비자발적이고, 동기를 가진다. 아가페는 사랑하며 대상 안에 가치를 창조하나 에로스는 대상 안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한다.

Outka는 사랑을 동등배려(equal regard)라고 지시한다(Outka, 1972: 9). 동등은 차별 없는 사랑을 의미하며 배려는 다른 목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어 끝까지 지속되는 속성이다. 따라서 원수사랑이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되며 일방향적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Nigren과 동일하게 강조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관계성'에 있다(이창호, 2016: 259). 그는 삼위일체의 관점을 투영하여 인격 상호간의 친밀한 교제야말로 신적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기독교 사랑은 '상호적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고상한 사랑이라는 견해를 펼침으로써(Outka, 1997: 487) 일방향성 이타주의 못지않게 상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였다(Outka, 1972: 176). 이로써 일방향성, 자발성 등의 절대적 속성은 다소 약화된다. 그러나 Outka가 Nigren의 사랑론과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사이에 연속점 못지않게 차이 역시 있음을 존중하자는 점이다. 실천 가능성에 그 초점이 있다. 예수님의 "절대 철회할 수 없는 타자지향성(Outka, 1987: 153)"은 어떤 인간도 실현할 수 없는 절대적 이상이라는 점이다.

Post(1994)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사랑의 대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나 선호도의 설정을 상정한다. 사랑의 이상은 단순한 대가 없는 일방향적 헌신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기 때문에(Post, 1990, 24) 정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개별적이고 구체적 관계로 진입하

2) Nigren은 아가페 외의 모든 유형의 사랑, 즉 필로스, 에로스 등의 사랑을 에로스에 포함시켰다. 즉 신적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여타 사랑의 통칭이 곧 '에로스'이다.

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이때 기독교 사랑 윤리는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된 감정의 역동적 소통이 불러오는 열정적 관계 형성이 그 규범적 이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수사랑은 그 우선순위에서 중요도가 하강하게 된다. 따라서 Post의 사랑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Nigren(2013)의 보편성이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Outka(1972)의 견해와 일치하면서도,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Nigren과 Outka가 중요하게 상정하였던 사랑의 이타적 일방향성과 차별 없는 원수 사랑의 강조점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2. 자기 사랑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살피고자 한다.

Nigren은 자기 사랑이 인간의 자연스런 조건일 뿐이고 사람의 의지를 타락시키는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을 오히려 배제하며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Nigren, 2013: 102). 왜냐하면 대계명은 명시적으로 자기 사랑을 제외한 두 계명으로만 요약되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롬 8:39)이 아가페의 원형이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갈 2:20)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함(고전 13:5)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가페는 에로스의 획득적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다.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되며(고후 5:14-15; 빌 2:21)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롬 15:1-3; 빌 2:4). Nigren은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는 저급한 자기 사랑뿐 아니라 영적인 자기 사랑(고전 7장)마저도 배척한다고 말한다(Nigren, 2013: 133).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골육과 친척의 구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롬 9:3).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가 그 마음에 부어짐으로 가능하다(롬 5:5).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Nigren은 자신을 부인하는 철저한 이타주의에 기초를 두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사랑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Hallet은 보다 자기 사랑에 자유롭다. 자아 선호 유형과 자아 부정 유형을 양 극단에 상정한 후, 그 연속선 위에 균형 유형, 타자 선호 유형, 자아 복종 유형, 자아 망각 유형 등으로 세분화하였다(Hallet, 1989: 2-10). 그리고 이 6가지 유형들이 기

독교인의 사랑 실천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먼저 자아 선호(self-preference) 유형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때 타자보다 자신의 유익을 좀 더 생각할 여지를 둔다. 둘째, 균형(parity) 유형이란 자아와 타자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균등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예로 들 때, 사랑의 동량보다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동질성을 두는 것이다(이창호, 2013: 134). 셋째, 타자 선호(other-preference) 유형은 자신보다 타자에게 더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 배려하는 것이며, 넷째, 자아 복종(self-subordination) 유형은 타자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만 자아를 배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유익과 충돌하지 않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 망각(self-forgetfulness)과 자아 부인(self-denial) 유형은 매우 유사한데 자기 유익이 타자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타자의 유익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자기 유익을 고려해서는 안 되므로(Hallet, 1989: 53-55) 타자를 위한 자신의 희생만이 정당하다. 즉, 자신의 유익은 타인을 유익하게 할 때에만 정당하다(Hallet, 1989: 6). 이 유형은 자신의 몸을 극진히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 Luther(1961: 366-369)의 견해와 가깝고 Nigren(1953)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Hallet은 여섯 가지 유형 중 자아 부정보다는 자아 복종의 규범을 신약 성경의 이상으로 제시한다. 타자 선호보다는 이타적이어야 하지만 자아 부정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타자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희생이 더 큰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 사랑을 죄악시하지는 않는다. 규범적으로는 자기희생적 타자지향을 따르지만 자기사랑의 윤리적 가능성에도 열려 있는 것이다(이창호, 2013: 138).

자기 사랑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인 Outka는 신중심적(theocentric) 자기 사랑론을 펼친다(Outka, 1992: 6-17). 하나님 사랑이 갖는 보편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사랑을 상정할 때 모든 인간이 가치 판단을 무효화하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해이다. 신중심적 관점에서 타자와 자아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은 Outka가 강조하는 동등 배려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사랑이다. 물론 기독교 사랑의 이타주의가 타자지향성과 일방향성을 규범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없다는 Nigren의 사랑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도 특별한 사랑이나 자기사랑 형태의 고유한

사랑이 긍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Nigren식 사랑법은 자신을 정당한 사랑의 대상 범위에서 제거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Outka, 1992: 17-44). 자아-타자 동등한 가치 인식의 부정적 영향과 자기희생적 사랑이 타자에게 미칠 해악 등이 그 오류이다. 따라서 Outka는 Nigren과 같이 자기 희생적 이타주의가 기독교 사랑의 최상의 덕목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사랑이 정당한 종교 윤리적 명령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존재의 질서라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이창호, 2013: 151).

자기 사랑을 자연적 현상, 죄에 근거한 잘못된 이기심,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으로 구별하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긍정적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기심과 자기 존중감은 동일하게 자기 사랑의 동의어로 취급되지만, 이기심은 버려야 할 것이고 자기 존중감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의 문제로 이슈를 환기하는데, 제사장, 레위인 등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은 자신을 타인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자기 사랑(존중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홍순원, 2015: 296). 즉,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존중과 자기 긍정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Fischer, 1994: 151). 예수님과 이를 본받는 우리의 자기 비움(빌2:5-8)도 자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홍순원, 2015: 298).

현대 대거 등장하고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disorder)자들은 인성에 있어 정당한 자기 존중감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Bingerman, 2000: 350). 이들에게 보이는 지나친 자기애, 즉 이기심은 자기대상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결과된 자기결핍의 현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홍이화, 2011b: 85-6). 이러한 접근은 진정한 자기 존중감과 이기심을 분리시킴으로 기독교계의 자기 사랑에 대한 논쟁에 하나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나 부모 등에 의해 수여된, 선행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원초적 관계성을 떠나서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 실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 이웃, 자기 사랑은 상호 연관되며 종속되어 있다(Outka, 2015: 34). 자기대상(Selfobject)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참된 자기 존중감 속에서 자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이란・이관직, 2014: 169). 오히려 자기를 긍정할 능력으로 비유할 수 있

는 '내재화된 자기구조'가 결여된 자, 즉 자기(Self)가 결핍된 자는 참된 사랑을 내면화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으로 퇴행하게 된다(홍이화, 2011b: 85-6).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있다. 참 자기대상이신 하나님이나 그 대리자인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공허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도 또 다른 자기대상, 즉 중요한 타인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사랑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Kohut, 1984: 77). 따라서 자기 결핍을 의미하는 이기심은 생래적 자기애로, 진정한 자기 존중감은 성숙한 자기애로 표현 가능하다.

Douma도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다만 자기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과 대립될 때에만 부인되어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병든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자기 사랑부터 회복하도록 권고해야 함을 강조했다(Douma, 2003: 152). Tournier도 심리적 약자의 정당한 방어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무력하게 자신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심령을 방어하고 순종을 위하여 이미 소유했던 자기(Self)를 자의로 희생했던 강자라는 점을 역설하였다(Tournier, 1991: 299).

이와 같이 기독교 내에도 자기 사랑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사랑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펼친 Nigren(1953)도, Outka(1997)나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자기 사랑 옹호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원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하는 계명이라는 데 적극 동의한다. 또한 이웃 사랑 계명에 있어서도 자기 사랑이 그 최하 기준으로 제시된다고 할 수 있지만, 두 사랑이 부딪힐 때 결국 이웃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범은 틀림없는 산상수훈의 요구이다(마 5:38-42). 이웃 사랑의 적용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차원적이지만,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요한의 진술은 자기보다 이웃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요일 3:16). 다시 말해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갈등과 화해는 규범적이기도 하지만, 보다 제자도로서의 실천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이다.

좀 더 명백하게 자기 사랑을 이기심, 즉 생래적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감, 즉 성숙한 자기 사랑으로 구별하여 적용한다면 이웃 사랑과 대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기심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하지만 자기 존중감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기 때문이

다. 가장 성숙한 자기 사랑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서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의 성품을 닮고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Ⅴ.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독일계 미국인 서서평 선교사의 한국(인) 사랑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기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백춘성 지음, 두란노)의 주인공 일대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서평 선교사의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의미 체계를 분석하고자 계열체 분석, 기호사각형 모형과 행위주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호학은 상징체의 구조를 밝히고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며, 이 상징체계가 구성하는 텍스트 기호들의 관계를 통해 그것의 심층 의미를 드러낸다(안주아, 2008: 265).

(1) 계열체 분석

계열체 분석은 등장인물과 소재 및 사건들 간 우호나 대립 관계를 근간으로 시간 추이나 어떤 연속선을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항대립 관계를 복합적으로 추적하여 심층 의미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등장하는 표현체들의 대립과 갈등을 근간으로 하여 이야기의 심층에 숨어 있는 중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기호 사각형 모형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 모형은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생성 경로를 따라 가면서 담화의 의미 구조를 파악해 가는 분석에 유리하다. 그레마스는 의미가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보았고 발화자는 담화 생성 이전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텍스트를 표출, 표층, 심층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고 생성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숨어 있는 맥락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착안한 기호 사각형 모형은 결여적 대립과 범주적 대립이라는 두 대립 유형에서 나온다.

기호 사각형의 의미 관계는 대립과 모순으로 이루어진다. 대립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모순은 의미가 현존과 부재에 의해 대립적 의미각을 가질 때 마주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S는 기표의 현존을, -S는 부재를 나타낸다. 이를 결여적 대립(S1 ↔ -S1)이라고 부른다. 범주적 대립은 S1과 S2, -S1과 -S2 범주 사이에 대립적 의미가 있을 때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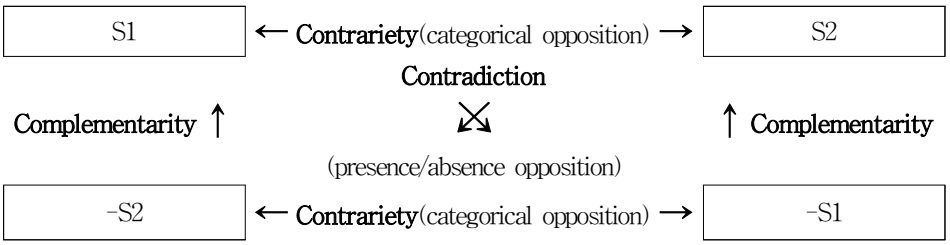


Figure 1. Greimas Semiotic Square Model(Greimas, 1997: 211)

(3) 행위주 모형

그레마스 행위주 모형은 인물들 간의 관계구조를 도식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욕구를 가진 주체가 그 욕구 발생 목적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충족하기 위해 주변인물을 지정하는 것을 모형으로 구현한 것이다(신항식, 2005: 86). 행위주 모형은 세 개의 축으로 생성된다. 첫째, 욕망의 축이다.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되면 그것이 이야기 전개에서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들은 욕구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원인과 자명성을 설명해 준다. 또 다른 축은 전달의 축이다. 발신자 대 수신

자 축으로 정보전달 혹은 가치체계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끝으로 조력자와 반대자는 '능력의 축'을 구축한다. 조력자는 주체의 실행을 돕고 반대자는 방해하는 행위주이다. 조력자와 반대자는 이야기의 확산에 관계하여 주체의 욕구가 실현되기 위한 도움이나 긴장을 유발한다(신항식, 2005: 87). 이야기는 위의 6개 기능(행위주)들의 관계가 전개되어 내러티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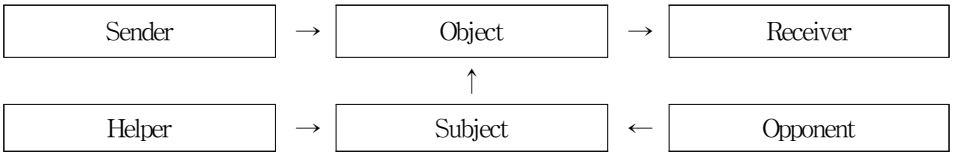


Figure 2. Greimas Actantial Model(Greimas, 1997: 278-97)

Ⅵ. 연구 결과

1. 계열체 분석

<서서평>의 주요 인물들 중 서서평의 엄마, 서서평, 타선교사들을 추출하여 계열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간의 이항 대립 구조과 그 중층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문장 끝 ( )로 표시된 것은 <서서평>의 페이지를 일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he Binary Opposition Structure of Shepping and her Mother and its Multi-level Meanings

Binary Opposition 1	Shepping's Mother	vs	Shepping
↓		↓	
Binary Opposition 2	Catholicism / Ignorance of Nurse	vs	Christianity/ Preference for Nurse
↓		↓	
Binary Opposition 3	Going to USA	vs	Going to Korea
↓		↓	

<continued>

Binary Opposition 4	Child Neglect	vs	Orphan Adoption
↓		↓	
Binary Opposition 5	Desire for Economic Power	vs	Desire for Missionary Work
⇓		⇓	
Deep Opposition Structure	Orientation to Success and Economic Power	vs	Orientation to Love and Service

‘서서평’과 ‘서서평의 어머니’의 이항 대립을 살펴보면 먼저 세 살 때 헤어졌다가 8년 만에 미국 땅에서 다시 만난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서평은 동료 간호사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 가톨릭 학교를 다니면서 부유한 친구들에게서 멸시와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다(25).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개종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게다가 어머니는 간호사라는 직업도 초라하다며 무시했다. 서평은 나이팅게일을 존경했고 마 4:23에 영감을 받아 교육, 전도, 치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간호 선교사로 헌신한다.

서평의 어머니는 사생아인 딸을 낳아놓고도 그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제 살 길을 찾아 미국으로 망명하지만, 서평은 개종 이후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가난한 식민지로 떠난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고아를 여럿 입양하여 키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단 한 번 방문했을 뿐 미국이 주는 부귀나 모성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고 한국과 결혼하여 한국인으로서 한국 여성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간다(137). 서평이 미국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어머니가 문전박대 했던 이유는 그가 누추하고 어렵게 산다는 이유였지만(137), 서평은 반대로 불우한 고아들을 입양하고 학교를 세워 가난하고 천대받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교육을 제공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고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들 대립항들은 심층 구조에 있어 다음의 의미를 드러낸다. 서평의 어머니는 성공과 경제력을 지향하는 인물이지만, 서평은 세상 자랑과 부귀를 멀리하고 이웃 사랑과 섬김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서평과 어머니는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자기 사랑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되었다. 반대로 서평은 혈육 부모인 어머니가 바라는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을 우선시하였다(눅 14:26).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

서평이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을 사랑할 자기 구조가 건강히 형성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그의 한국에서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 증명해준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아니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즉, 서평은 부모의 사랑 대신 하나님이라는 원초적 자기대상의 사랑을 통해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자기 사랑 능력을 내부에 형성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기를 붕괴하지 않고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서평>에 기초해 볼 때, 어머니는 자기 자신, 하나님, 이웃이라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서평이 사랑한 대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 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Table 2 The Binary Opposition Structure of Shepping and Other Missionaries and its Multi-level Meanings

Binary Opposition 1	Other Missionaries	vs	Shepping
↓		↓	
Binary Opposition 2	Red Double-storied Western Houses	vs	A Dented One-storied House
↓		↓	
Binary Opposition 3	Abundant Salary and Commercial Activities	vs	Extreme Poverty and Unplanned Intemperate Relief
↓		↓	
Binary Opposition 4	Sermons for Selfish Ends	vs	Sermons on Christ's Love
↓		↓	
Binary Opposition 5	Disinclination to Services	vs	Commitment to Services
⇓		⇓	
Deep Opposition Structure	Orientation to Selfish Love and Economic Power	vs	Orientation to God Love and Neighborly Love

<서서평>에 따르면 미국에서 온 타선교사들(일부)과 서평은 같은 선교사이지만 전

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다. 서평은 빈민 구제에 규모 없이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생활 형편이 극빈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에 신발은 늘 검정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은 그런 서평이 “미국인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선교사들 망신을 시키고 있다”(187)고 생각했다. 타선교사들은 빨간 벽돌로 지은 이층 양옥에 살았고, 해마다 한국인 하인을 시켜 페인트칠과 단장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서평의 집은 나무 기둥과 흙벽의 초라한 단층집이었다. 서평이 서거한 후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찌그러진 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188). 이처럼 사는 집의 대조가 가능했던 것은 타선교사들의 경우, 가족과 애견 수당까지 나오는 자국으로부터의 월급을 받으면서 달러 장사, 토지 장사, 재산 소송, 고용인을 통한 축산과 농업까지 상업적 재테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선교 활동을 국익 사업과 동일선 상에 두었기 때문이다(이종록, 2015: 69). 그러나 서평은 윤락 여성 구제, 장학금, 빈민 구제 등의 규모 없는 지출로 스스로는 극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서평도 한국의 참상을 외면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만 일삼는 다른 선교사들을 책망하곤 하였다(187).

설교나 예배에 있어서도 메시지나 참여 태도가 전혀 이질적이었다. 서평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한 설교를 한 반면, 다른 선교사들은 고용인들을 겨냥해 “도둑질 하지 말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같은 말씀을 주로 설교하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었다(189). 또 서평은 밤낮 모든 예배, 기도회, 정기 집회, 초청 집회 등에 아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나 다른 선교사들은 밤 예배나 기도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189).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타선교사들(일부)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 재산 축적을 지향하는 선교활동을 한 반면, 서평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인물이었다. 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서평의 사랑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즉, 선교사들은 이웃보다는 자기를 우선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Hallet이 구분해 놓은 6단계 중 자아 선호적인(Self-preference) 사랑을 했으나, 서평은 대상의 가치나 동기에 좌우되지 않는 Nigren식 아가페 사랑, 즉 자아 부인의(Self-denial)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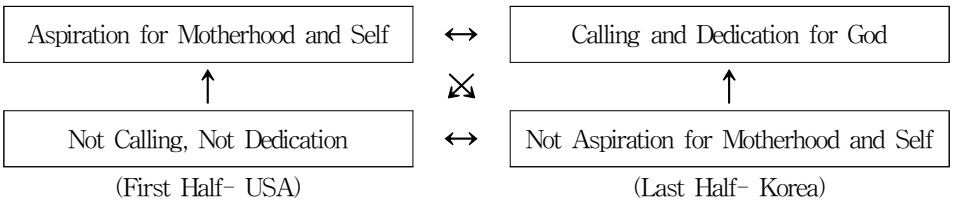
서평의 어머니와 타 선교사들의 사랑을 서평의 사랑과 비교하여 Nigren(2013)의 설명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타선교사	vs.	서서평
획득적인 욕망과 동경		희생적인 베풂
자기중심적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의 생명 즉 신적인 영원불멸의 생명을 얻으려고 함.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상실함.
결핍과 필요에 의존하는 획득과 소유 의지.		풍부하기 때문에 베푸는 자유.
주로 인간의 사랑. 에로스가 하나님에게 돌려질 때에도 인간적 사랑을 본받은 것.		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사람에게 돌려질 때에도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본받은 것.
대상의 속성과 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됨. 비자발적이고 환기되며 동기를 가짐.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권적.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함.
대상 안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함.		사랑하며 그 대상 안에 가치를 창조함.

이처럼 서평의 사랑 방식은 일방향적이고 보편적인 점이 확연하며, 아가페적 원수사랑을 절대적 이상으로 놓는 Nigren(2013)과 Outka(1972)의 사랑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의 선호적 선택을 옹호하면서 이웃 관계에서 개별적이고 감정적 역동을 중요시한 Post(1990; 1994)의 관점에서 보면 타민족이라고 하는, 감정적 연대가 약한 이웃들을 우선적으로 품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고아들, 여성들과 집단적으로 어울려 살았다는 점에서 좀처럼 자연적 인간으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사랑법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호 사각형 모형

(1) 공간 이동: 잠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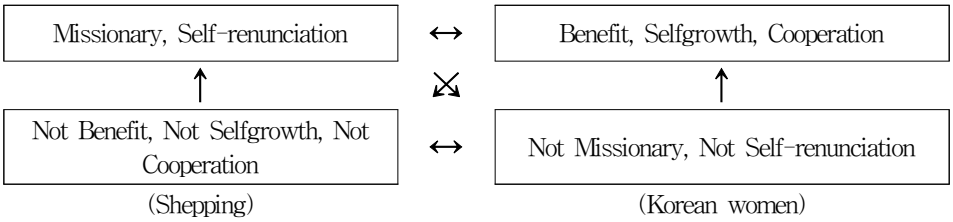
서평의 이야기는 독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삶과, 서른 살 이후 한국에서의 삶으로 크게 대별해볼 수 있다. 첫 번 째 공간 이동은 서평이 할머니와 살던 독일을 떠나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 일이다. 두 번째 공간 이동은 미국에서 간호학과 신학 공부를 마친 후 간호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 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발견하고 이에 헌신하기 위해서였다.

이 공간 이동은 그녀의 신앙 성장의 궤적과 일치한다. 독일 가톨릭 학교 친구들에게서 받은 심리적 어려움과 부모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은 미국이라는 땅에서 재회한 어머니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하여 일부 해소된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신앙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미지의 가난한 식민지 땅, 한국에 소명과 헌신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귀착한다. 당시 한국은 식민지 압제가 극에 달하던 때였는데 서평은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독립 운동에까지 관여한다(28-30). 3.1운동에 가담했고 한국의 상황을 출애굽기에 빗대어 강조했으며 한글의 존귀성을 인식하고 존중했다(29). 서평에게 한국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과 동일시되고 똑같은 처지가 되어 체휼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주로 죄인들, 빈민, 병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무한대적인 사랑의 확장, 즉 진정한 의미의 원수사랑을 실천하였다. 이것이 그를 '우리말을 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르는 이유이다(27).

서평 자신의 사랑 방식은 미국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건 전후로 변화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방식인 에로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소

명으로 채워진 아가페로 전개되어 갔음을 시사한다. 이 변화의 중심에 그가 미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서평의 사랑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준다. 선행하는 사랑을 수여받지 않고는 타인을 올바로 사랑할 능력이 부어질 수 없는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홍이화, 2011b: 85-6), 고아나 다름없었던 서평의 자기 대상으로 기능한 위대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음을 고지하는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롬 5:5)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준다.

(2) 서서평과 한국 여인들: 관계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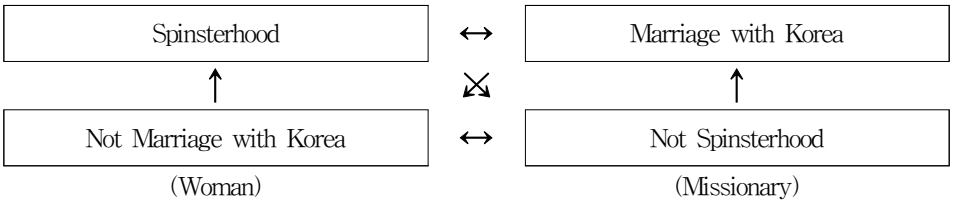
서평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선교와 사회사업을 실천하게 된다. 서평은 매사에 능동적이어서 복음전도뿐 아니라 위생, 교육, 의료, 구제사업 등에도 열심이었다(148). 이일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마을 마을로 찾아다녔으며 창녀나 윤락여성을 찾아가 구출하고 장학, 구제사업 모두에서도 개개인을 찾아가서 나눠주는 공격형 선교를 행했다(148).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휴가도 없었고 최소한의 식사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늘 뛰어다녔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거나 오락 취미 등의 쾌락을 즐기는 일은 전혀 없었다(144). 월급의 절반은 교회에 바쳤고 학교 경영과 장학, 굶주린 사람에게 모두 나누었다(145). 동료 선교사들에게 위선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고무신 한 켤레와 무일푼의 삶을 기쁘게 영위했다(146).

이 같은 서평 사역의 수혜는 한국 여성들에게 돌아갔으며 그의 사역으로 기독교인이 된 여성들은 결과적으로 신앙, 생활, 교육 모든 면에서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서평이 여성 사역에 헌신했던 이유는 그의 눈에 한국 여성들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이다(68). 남녀 차별과 여성 문맹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 교육의 시급성을 보았다. 이일

학교를 세웠을 뿐 아니라 재학한 여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양잠과 직조를 가르쳤고(71-2) 까다롭다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위생에 철저하게 교육했다(86). 졸업생 대부분이 교사나 유학생, 간호사, 전도부인, 전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수혜자들 대부분이 서평의 동역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평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살았다. 서평이 가르친 제자들에는 김화남, 강계생, 오복희 등이 있는데 김화남 전도사의 경우, 서평 교장의 도움으로 공부했으므로 고령까지 외로운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고(96), 강계생은 제주도 전도사로, 78세 이후에는 권사로, 여전도회 연합회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서평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생활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였다(99). 오복희는 서평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는데 임종 때 유언대로 광주천변의 빈민들 구제, 귀일원(신체장애인 수용소) 전도사 사역으로 일생을 보답했다. 이와 같이 서평은 불우한 여성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 사랑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고 그들 역시 사랑의 실천자로 변화시켰다. 이는 '상호적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고상한 사랑이라는 Outka(1972: 176)의 사랑법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사랑법은 이타주의뿐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Outka, 1997: 487) 또 다른 제자를 낳아 헌신케 하는 일이기도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3) 여자와 선교사로서의 서서평: 패러독스적 의미



그는 여성으로서는 독신의 삶을 살았지만 한국과는 결혼하였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미인이고 한국말도 잘했던 그녀가 54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는 성격은 남자였기 때문이다(63). 서평은 남성적인 남자가 싫었을 뿐 아니라 자신처럼 급한 성격의 여성은 결혼과 육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64).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행

복을 위한 둥지를 트는 일을 포기했다. 그는 마 19:12와 고전 7:33-34 말씀을 자기 삶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 오직 하나님 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서평이 독신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기에 한국과 결혼하여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과의 결혼 발언은 하나님과 한국 사랑에 대한 자기희생적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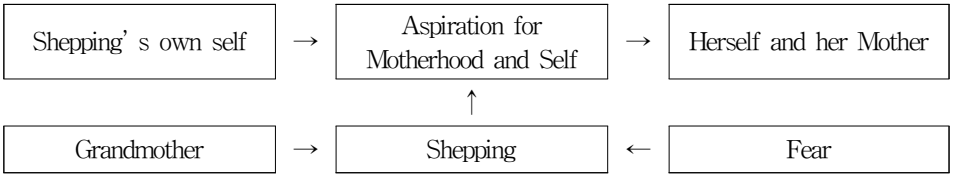
서평이 23년 한국에 사는 동안 본국에 돌아간 것은 단 한 번이었다(135). 안식을 꺼렸던 이유는 한국에서의 사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항상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이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 12:50)"의 말씀으로 결혼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 어머니나 형제를 만나는 것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의 대답은 한국만을 가족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14명이나 되는 입양아를 키웠고 빈민과 환자들을 일가친척이라 불렀다(136).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서평의 초라한 모습에 기가 막힌 어머니는 집안 망신이라며 문전박대를 하였고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 민족을 위해 일하느라 그렇게 된 딸을 이해해주지 못 하는 어머니를 서평은 원망하지 않고 더욱 한국 사랑을 키울 뿐이었다(137).

그가 한국을 사랑함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이웃(원수) 사랑에 능가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순한 한국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가 즐겨 인용하던 마19:29과 마12:50 모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하는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가족이라는 뜻이 함축하듯 하나님 우선의 신앙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원수라도 사랑함" 즉 이웃 사랑의 본질로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랑은 서평의 삶에서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렇다면 서평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자기대상은 물론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에 타인을 품을 수 있었다. 나아가 그가 돌보던 한국인들도 바로 그의 가족, 즉 자기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평이 더 많이 베풀고 한국인들은 받기만 했다는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호적 사랑, 즉,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적 사랑이 가능하게 했던 사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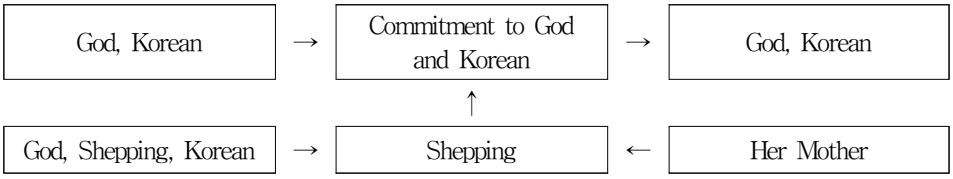
3. 행위주 모형

(1) 서서평: 전반



행위주 모형을 통해 서서평 삶의 초반 6개의 행위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서평의 욕망 추구와 관련된 축부터 살펴보면 '주체(subject)' 서서평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야기 전개에서 욕망 추구의 '대상(object)'은 모성과 그 모성을 통해서 재확인될 자아이다. 이 욕구 추구는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 키워진 서서평이 왜 미국행을 결정했고 어머니를 만나는 위험스러운 도전을 감행했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다음으로 전달의 축을 살펴보면 주체의 가치체계 관리자 역할을 하는 '발신자(sender)'는 자기 자신으로 확인된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추구를 통해 수혜를 받는 '수신자(receiver)'는 자기 자신과 어머니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축을 살펴보면 서서평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 능력을 주는 '조력자(helper)'는 이 행위를 동조해준 할머니였고, '방해자(opponent)'는 어린 나이에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와 조우하는 일에 때때로 끼어드는 두려움이었다.

(2) 서서평: 후반



후반의 서평 삶은 모든 것이 바뀐다.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

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한다. 욕망의 축에서 그의 추구 '대상(object)'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미지의 식민지 땅 한국을 섬기는 것으로 변한다. 전달의 축에서 가치체계 관리자인 '발신자(sender)'는 하나님과 한국인이 되었다. 동시에 '수신자(receiver)'도 하나님과 한국인이 되었다. 그의 사명을 주고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준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혜를 통해 성장했던 한국인 덕분이기도 하였다. 서평의 사명 실천의 수혜자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 사명의 열매를 누렸던 한국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축을 살펴보면, 서평이 하나님과 한국을 섬기는 사명에 있어 '조력자(helper)'는 하나님, 서평, 한국인 모두였으며, '방해자(opponent)'는 선교사와 간호사 되는 것 모두를 반대했던 어머니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서평에게 진정한 가족은 '발신자', '수신자,' '조력자' 모두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들, 즉 하나님과 한국인으로서, 서평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자기나 가족 사랑보다 최우선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평의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1차 선행되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으며 점차 사역을 진행하면서 한국인들도 그에게 2차적 자기대상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Ⅶ. 결론

위에서 발견된 서서평의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함축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의 모든 사랑의 핵심과 원천은 하나님 사랑이다. 서평의 삶을 전반과 후반으로 대별해 볼 때, 그의 삶의 가치관은 극명하게 대립된다. 그 전환점에 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위치해 있다. 서평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계명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 서평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선명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Nigren(1953)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규정한 아가페의 성격을 가장 닮아있는 사랑법을 나타낼 수 있었다. 획득적인 욕망이나 동경보다는 희생적인 베풂을, 자기중심적이기보다 이타적이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에 그것을

상실하는 사랑을, 결핍에 의지한 소유 의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풍부한 사랑을 받았기에 베푸는 자유를, 인간적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을, 그리고 대상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동기지향적인 사랑이 아닌 비가치판단적이며 비동기적인 사랑이었다.

둘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보다 우선되었다. 자기 사랑을 긍정한 Outka (1997)의 사랑법이 아니라 자기 희생만이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Nigren의 사랑법에 가깝다. Hallet(1989)의 구분대로라면 자기 망각(Self-forgetfulness)과 자기 부인(Self-denial)에 해당된다. 서평에 대한 모든 일화, 독신의 삶, 임종의 순간과 유언, 임종 이후 남긴 무일푼의 메시지는 모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유익도 구하지 않은 삶이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풍요와 성공적인 인생을 지향하였던 서평의 어머니나 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던 타 선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서평의 이러한 면모는 확연히 드러난다.

셋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원수사랑의 본질을 띠었다. 서평은 익숙하고 안정지향적인 혈연 가족을 떠나 가난하고 억눌리고 불우한 한국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아예 한국인이 되어 한 가족으로 살았다. 여기서 원수사랑은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 사회적 동류인의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사랑함을 의미한다(조경철, 2000: 136).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서평의 닉네임은 이 점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서평이 가족을 떠났다는 사실은 경계를 넘어서 함께 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일방향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편견과 기호를 넘어선 보편적 사랑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대 타선교사들에게 없었던 비제국주의적이며 모국 초월적인 이타적 사랑이었다. 사랑할 가치도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제3의 나라를 고국보다 우위에 두는 사랑이었다(눅 14:26). 따라서 Outka(1972)가 강조한, 이웃과 동등한 선상에서의 자기 긍정이나, Post(1990)가 상정한, 대상에 대한 선호적 선택이나 감정적 역동의 중시는 서평의 삶과는 무관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상호적이었다. 서평은 원수(이웃)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친구로 만들어(Outka, 1972: 176) 보다 이상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서평은 그가 구제하고 선교한 한국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14명이나 되는 고아를 입양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를 세워 제자들과 한 곳에 기거하면서 결혼의 개념과 유사하게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했다. 이타주의뿐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주고(Outka, 1997: 487) 한국인들도 서평에게 또는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기대상이 되어주도록 했다. 서평이 키우고 가르친 많은 제자들은 이후 다른 제자를 낳아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헌신하였다.

다섯째, 서평은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자기애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버려졌던 서평이었지만 개종 이후 그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사실을 두고 볼 때, 그를 돌보고 사랑하여 건강한 자기(Self) 구조를 가지도록 해준 자기 대상은 하나님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한국인 이웃도 그에게는 가족 즉, 자기대상이었던 것이다. 서평과 한국인은 상호 이웃이었고 상호 헌신되어 있었다. 서평이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이러한 자기대상들의 공헌이 있다.

서평은 한국에서 남다른 이웃 사랑에의 헌신 때문에 선교사, 간호사, 교육가, 사회사업가 등의 다수의 별칭을 가지고 있다. 서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의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배태되었다.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가는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 태도를 결정한다. 그가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에 전폭적으로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자들을 품고 헌신할 수 있었다. 이기심 없는 이웃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였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방기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서평은 희생했으나 또한 얻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제자들과 가족을 얻어 자신이 베푼 사랑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서평이 보여준 선교지에서의 동일화 사고와 성육신 태도는 오늘날 교회들의 선교 사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김은주 (2015). 서서평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대한 함의. **신학과 사회**, 10, 45-90.

[Kim, E. J. (2015). Understanding of Elizabeth J Shepping's Educational Mission and Its Challenge to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Society*, 10, 45-90.]

박인희 (2016). 원수사랑, 하나님 나라: 자비와 평등의 공동체적 이상. **신학논단**, 84, 281-313.

[Park, I. H. (2016). Love for Enemy and the Kingdom of God : Ideals of Compassion and Equality in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Theological Forum*, 84, 281-313.]

백춘성 (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울: 두란노.

[Baek, C. S. (2017). *A Little Jesus Shepping.* Seoul: Duranno.]

신항식 (2005). **시각영상 기호학.** 서울: 나남.

[Shin, H. S. (2005). *Visual Image Semiotics.* Seoul: Nanam]

안주아 (2008).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의 기호학적 분석: 등장인물의 이미지 및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사회학연구,** 8, 261-285.

[An, J. A. (2008). Semiotical Analysis of Animation Movie 'Shrek': Characters' Images and Ideologies. *Sociology Studies*, 8, 261-285.]

양창삼 (201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울: Serving the People.

[Yang, C. S. (2012). *Happiness to Serve Chosun.* Seoul: Serving the People.]

윤매옥 (2016). 일제강점기 서서평 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 **JCCT**, 2(1), 71-78.

[Yun, M. O. (2016). Shepping's Life and Nursing in Japaneses Period. *JCCT*, 2(1), 71-78.]

이윤석・김슬기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아버지 캐릭터의 부성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215-228.

[Lee, Y. S. (2011). Research on the Semiotic Analysis of Father Characters' Paternity in Korean Film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2), 215-228.]

임희모 (2013). 전문인선교사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 전략과 영성. **신학논단**, 74, 183-212.

[Yim, H. M. (2013). The Holistic Mission Strategy and Kenotic Spirituality of Professional Missionary Elisabeth J. Shepping. *Theological Forum*, 74, 183-212.]

임희모 (2015a). 서서평 선교사의 성육신적 선교. **선교와 신학**, 36, 173-204.

[Yim, H. M. (2015a). Incarnational Mission of Missionary Miss Elisabeth J.

Shepping, R.N. *Mission and Theology*, 36, 173-204.]

임희모 (2015b).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서평 선교사의 선교 사역: 선교적 교회 형성에 주는 함의. **선교신학**, 38, 265-297.

[Yim, H. M. (2015b).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Miss Elisabeth J. Shepping R. N. as a Missional Christian: Implications for Formation of Missional Church. *The Korea Society of Mission Studies*, 38, 265-297.]

이 란・이관직 (2014). 자기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중독 이해: 목회상담적 적용 가능성. **목회와 상담**, 22, 142-278.

[Lee, R. & Lee, K. J. (2014). Understanding Addiction from a Perspective of Self Psychology: Implications for Pastoral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22, 142-178.]

이정윤 (2010).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구조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3(4), 205-210.

[Lee, J. Y. (2010). A Study on Analysis of Animation Storytelling based on Structural Semiotics.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3(4), 205-210.]

이종록 (2015). 무명옷에 고무신 보리밥에 된장국 - 서서평의 비제국주의적 정신이 갖는 시대적 의미에 대한 연구. **담론 201**, 18(4), 69-94.

[Lee, J. L. (2015).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Non-imperialism of Shepping in Her Times. *Discourse 201*, 18(4), 69-94.]

이창호 (2013). 자기사랑에 관한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담론 탐색. **기독교사회윤리**, 25, 121-164.

[Lee, C. H. (2013). A Study on the Discourse of 'Self-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Christian Social Ethics*, 25, 121-164.]

이창호 (2016).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장신논단**, 48(1), 255-281.

[Lee, C. H. (2016). A Theological and Eth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s Love/ Love for God and Neighbor-love/ Love for Neighbors : Focusing on Outka, Post and Moltman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1), 253-281.]

이혜숙 (2016).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평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13, 431-476.

[Lee, H. S. (2016) A Biographical Study of E. J Shepping with Feminist Perspective, 13, 431-476.]

조경철 (2000). 예수의 원수사랑 계명과 하나님나라 선포: 예수의 하나님나라 윤리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 41, 128-148.

[Cho, K. C. (2000). Das Gebot von der Feindesliebe und die Verkündigung von der Gottesherrschaft Jesu. *Theology and the World*, 41, 128-148.]

차성호 (2014). 근대적인 전문 사회사업의 선구자 서서평. **담론 201**, 17(4). 29-57.

[Cha, S. H. (2014). A Study on the Modern, Professional, Social Mission Work of Ms. Elisabeth Shepping(1880-1934). *Discourse 201*, 17(4), 128-148.]

차성호 (2015). 서서평의 누미노제 체험과 지역사회서비스의 이해-칼 융의 무의식 이론에 기대어. **담론 201**, 18(4), 35-68.

[Cha, S. H. (2015). Study on a Local Social Service Focusing on Elisabeth J. Shepping's Numinos Experi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Carl Gustav Jung's Unconscious Theory. *Discourse 201*, 18(4), 35-68.]

홍순원 (2015). 자기사랑을 통한 도덕 심리학의 기초 설정. **신학과 실천**, 47, 289-311.

[Hong, S. W. (2015). The Establishment of Moralethics in the Light of 'Selflove.' *Theology and Praxis*, 47, 128-148.]

홍이화 (2011a). 자기사랑을 위하여: 건강한 나르시시즘. **기독교사상**, 628, 262-271.

[Hong, E. H. (2011a). For Self Love: Healthy Narcissism. *Christian Philosophy*, 628, 262-271.]

홍이화 (2011b). **하인즈 코헛의 자기 심리학 이야기1.**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Hong, E. H. (2011b). *Kohut's Self Psychology Story 1.* Seoul: Korea Psychology Therapy Institute.]

Bingerman, K. A. (2000). The New Narcissist and Pastoral Counselling. *Pastoral Psychology,* 48, 348-359.

Brown, G. T. (1962). *Mission to Korea.* Atlanta: Board of World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Douma, J. (1997). *Christian Morals and Ethics.* Trans. Shin, W. H.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Fischer, J. (1994). *Leben aus dem Geist*. Zurich: Theologischer Verlag.

Greimas, A. J. (1997). *Du Sense I, II.* Trans. Kim, S. D. Seoul: Human Love. (Original work published 1962-8).

Hallet, G. L. (1989). *Christian Neighbor-Love: An Assessment of Six Rival Version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Knox, M. B. (1926). An Interview. *The Korea Mission Field* (Oct.), 215-6.

Knox M. B. & Talmage E. E. (1934). Miss E. J. Shepping: Appreciation, *The Missionary Survey* (Oct.), 218-219.

Kohut, A.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igren, A. (2013). *Agape and Eros: The Christian Idea of Love.* Trans. Ko. G. K. Seoul: Christian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Nisbet J. S. (1934). *Letter tp Mr. Green.* July 3. 1934. (private letter)

Outka, G. (1972). *Agape: An Ethic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Outka, G. (1987). Following at a Distance: Ethics and the Identity of Jesus. In Green. G. (Ed.) (1987). *Spiritual Authority and Narrative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Outka, G. (1992).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In Santurri, E. N. and Werpehowski, W. (Eds.). *The Love Commandment: Essays in Christian Ethics and Philosoph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Outka, G. (1997). Agapeistic Ethics. In Philip Q. and Sharles T. (Eds.)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Oxford: Blackwell.

Post, S. (1990). *A Theory of Agape.* London: Bucknell University Press.

Post, S. (1994). *Spheres of Love.* Dallas: SMU Press.

Shepping, E. J. (1920). District Nursing Ⅱ. *KMF* (1920), 205-7.

Swinehart, L. H. (1937). Elise Johanna Shepping: A Missionary Deborah. In Hallie P. W. & Sarah L. V. T. (Eds.). *Glorious Living: Informal Sketches of Seven Women Missiona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Atlanta: Committee on Woman's Work, Presbyterian Church.

Tournier, P. (1991). *The Strong and the Weak.* Trans. Kwon, M. D. Seoul: Voice. (Original work published 1963).

논문초록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이 란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지상선 (교신저자/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수료)

본 연구는 독일계 미국 간호 선교사 '서서평'의 삶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최근 출판된 서서평의 전기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분석 텍스트로 정하였다. 사용한 기호학 방법은 계열체 분석, 기호 사각형 모형, 행위주 모형이다. 이를 통해 밝혀진 서평의 사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의 모든 사랑의 핵심과 원천은 하나님 사랑이었다. 둘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보다 우선되었다. 셋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원수사랑의 본질을 띠었다. 넷째, 서평의 이웃 사랑은 상호적이었다. 다섯째, 서평은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자기애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버려졌던 서평을 돌보고 사랑하여 건강한 자기(Self) 구조를 가지도록 해준 자기 대상은 하나님과 한국인 이웃이었다. 서평이 성숙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이러한 자기대상들의 공헌이 있다.

주제어 : 서서평,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기호학 분석